

새 책

경계를 넘나들던 중세 사람들 이야기

▶하루도 쉬운 날이 없어(소시민J)=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그러나 공무원만을 위한 것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 책은 수많은 민원인을 만나며 겪는 분노와 동요,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감동과 기쁨을 재밌는 일러스트로 승화한 서울시 모 자치구 N년차 공무원 소시민J의 리얼 민원창구 이야기다. 로그인, 1만6000원.



▶혼자사는 게 취미입니다(강지연 지음)=이화여대를 졸업하고 S전지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퇴사 후 독일외국어고에 유학을 가 플로리스트가 돼 돌아온 강지연은 시인이며 사회복지사이며 미술치료사이기도 하다. 혼자여서 행복하고, 혼자여서 더 빛나는 사람, 강지연의 즐거운 솔로 예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문학의 전당, 1만2800원.



▶부여 찾아 90000리(잔아 지음)=부여 사람, 잔아(殘兒) 김용만의 이 책은 백제 패망의 슬픈 역사를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특히 백제의 미학적 탐구라는 주제의식을 멀리 백제 시대로까지 소급해 올라가는 대신 6·25전쟁과 그 이후라는 '동시대적' 이야기를 통해 실현, 체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지북, 1만4000원.



▶시대를 저격하라(엔니 스트림 스테트 지음, 베니타 부크트 그림, 이유진 옮김)=불합리한 세계에 강편치를 날린 청소년 액션 히어로 16인의 이야기. 스웨덴의 유명 언론인이자 유니세프 친선 대사인 저자가 성차별, 사회적 약자, 인종주의, 건강과 교육 불평등, 환경 위기 등 지구촌 이슈의 기수가 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엮었다. 푸른숲주니어, 1만4800원.



▶매일매일 행복해(프란체스카 피로네 글 그림, 오현지 옮김)=이 책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꿈꾸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읽을 수 있다. 친절과 배려를 통해 닫혀 있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행복을 위해 용기 내는 법을 알게 해 준다. 펜 끝에서 피어난 섬세한 표정과 그림은 화려한 색감에 지친 사람들에게 편안함 느낌을 준다. 피카주니어, 1만4000원.



▶구름 강아지(김정숙 지음, 김진희 그림)=제주아동문학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숙 작가의 신작 그림책. 안타깝게도 아빠를 잃은 선미 가족이 한 반려견을 만나 같이 지내면서 아픔을 치유하는 이야기다. 새로운 생명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다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따뜻한 그림과 함께한다. 한그루, 1만5000원.



차용구의 '중세 접경을 걷다'

중세사 공간적 지평 넓혀 경계 허문 여성 삶도 조명

책 '중세 접경을 걷다' (차용구 지음, 산처럼 펴냄)는 경계를 넘나들던 중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양 중세사를 전공한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 저자는 서유럽에 편중된 서양 중세사의 공간적 지평을 동유럽과 북유럽 지역으로 넓히고자 시도했다. '책을 내면서'에서 그는 "기존의 서유럽과 '기타' 유럽이라는 중심-주변의 공간적 차별을 넘어서 관계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역사의 상호 교섭적인 모습을 되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책에서 '변경' '변방' 대신 경계와 경계를 서로 잇는다는 의미의 '접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저자는 "경계를 단순히 중심들 사이의 주변이나 변두리로

설명하면서 중심에 대한 대립항으로 보려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고자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저자가 말하는 접경은 "역사가 피어나는 공간"이었다. "이질적인 것들이 부딪치고 맞물리면서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삶과 문화가 솟아났다 사라지는 공간"이었으며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상충적인 가치들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책은 크게 4부(1부 경계와 여성, 2부 중심과 주변, 3부 이주와 국가 만들기, 4부 항구도시)로 구성됐다. 저자는 중세를 인물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되살린다.

특히 제1부 경계와 여성에서 '경계 위의 유랑인, 헝가리의 왕비 기젤라'를 비롯 경계를 허문 남장 여성들 등 남성보다 연약하고 열등한 성(性)으로 여겨졌



던 중세 시대 여성들의 삶을 비중 있게 다룬다.

출판사는 "접경지대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을 통해 중세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며, 근대 민족주의 시각으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모험과 도전으로 가득한 생생한 중세 이야기를 펼쳐 보여주고 있다"며 "다양한 삶과 문화가 만나고 충돌해 새로운 정체성이 꽃핀,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고, 미처 알지 못했던 중세 접경지대의 흥미로운 역사 여행을 한껏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1만7500원.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어느 변호사의 가상 변론 노트

류동훈의 '변호사 실격'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그를 변호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변호를 당당히 거절해야 하는가. 그를 적당히 변호하는 적해야 하는가."(본문 중)

법학박사이자 변호사인 류동훈 저자는 '법이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법조인은 누구이고, 변호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갈등을 이어왔다. 책 '변호사 실격'(지노 펴냄)에는 그렇게 변호사의 신분으로, 또는 한 개인으로, 법과 정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모습이 오히려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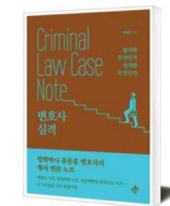
'변호사 실격'은 형법에 관한 책이지만 그저 법학책만은 아니

다. 어느 변호사의 가상 변론 노트이자 일기장이다.

출판사는 "저자는 '세월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추행범 허절단' 사건과 같은 우리 형법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도 하다"고 소개한다. 또 "독자들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형법의 내용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나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두루 살펴 생각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책은 '변호사 실격'외 12개의 이야기로 묶였다.

분문은 사건이 발생하면 주인



공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들과 직접 부딪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법이론을 적용할지 고민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게 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때문에 어떻게 성립하는지 대략적이지만 핵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고, 실제 사건의 판결문을 인용함으로써 현실감과 완성도를 높였다. 1만5000원.

오른지기자

"제주 문화의 모든 것 담긴 곳"

강정호 사진집 '본향' 펴내 1990년대 펼쳐진 곳 이야기



글과 사진으로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가 강정호 작가가 최근 '본향' 사진집을 펴냈다

'1990년대 제주'이란 부제가 달린 이 책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도내 곳곳에서 펼쳐진 신과세제를 비롯해 영등굿, 좁수굿(해녀굿), 4·3 50주년 해원큰굿 등이 담겼다. 건입동의 칠머리당을 비롯해 우도, 신양리, 송당리, 와흘리 김녕리 등 도내 곳곳에서 찍은 146컷의 흑백과 컬러사진이 수록됐다.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접하면 접할수록 곳에는 제주 문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가정의 안녕을 기원함은 물론이거니와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고자 했던 염원까지도. 제주의 정체성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기층민인 민중들에 의해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각종 개발행위로 신들의 거주처인 신당이 허물어지고, 심방과 단골을 또한 고령화와 함께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보며 안타까움을 표한다. 그래도 기록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사진기자 출신인 저자는 제주대 강사, 제주민예총 이사를 거쳐 현재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그루, 2만5000원. 오른지기자

김양택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김양택 수필가가 최근 다섯 번째 수필집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를 펴냈다.

총 8부로 구성된 수필집에는 '오일장에 가면' '거리두기' '싱그러운 5월의 첫날' '이런 곳이 있었네' '나의 인생 3모작' 등 작가의 삶의 이야기가 담겼다.

김 수필가는 '책 머리에'서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을 풀어놓았다. "수필은 진솔한 자기 삶의 이야기이며, 나의 살아온 역사이기도 하다"는 그는 "그동안 뒷밭을 일구며 자연과 더불어 내 인생을 생각하고, 산을 오르며 겸손함도 배웠다. 그뿐인가. 마라톤을 하면서 나의 인내와 한계에 도전한 적도 있었고, 지인들과 여행을 하면서 또다른 세계를 접하기도 했다"며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몸속에 쌓여 추억이 되고, 내 삶의 무게가 되었다. 좋던 그렇지 않던 내가 지고 갈 짐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열림문화, 1만5000원. 오른지기자



novita
A KOHLER COMPANY

풍성한 가을맛이 노비타 비데 기획전

2022. 09. 14 - 10. 31
무료설치 | 비데 필터 증정 (2개)

노비타 제주점
(구. 제인일보 맞은편)

▲ 공항

신광로터리 ● 빽스 ● 요양병원 ● 신제주로터리 ▼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구입 문의 | 제주총판 064-758-0991 주소 : 제주시 연삼로 17

● **3년무상A/S** BD-AFE50N

#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

~~299,000~~ 7만원 할인
229,000원

● **살균비데** BD-H500E0

#매일 자동살균
#자동노즐세척
#강력방수

~~335,000~~ 5만원 할인
285,000원

● **노즐교체비데** BD-C500E0

#노즐 교체
NEW 회전노즐
3D무브
#강력방수

~~299,000~~ 3만원 할인
269,000원

● **살균비데** BD-H700H0

#매일 자동살균
#3가지 수류
#3D무브
#강력방수

~~419,000~~ 5만원 할인
369,000원